

【農林水産物・食品の広報】

琉球泡盛PRレセプションの開催(韓国)



【概要】

- ◆ 日本産酒類の輸出拡大のポテンシャル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釜山総領事公邸において、泡盛の魅力発信と併せて沖縄料理や、観光についてもPRするレセプションを開催。
- ◆ 今次レセプションにおいては、酒類輸入・卸売業者、食品輸入事業者、小売店、飲食店、ホテル関係者、メディアやインフルエンサー等、約110名が参席。
- ◆ ラフテーなどの沖縄の代表的な料理に加え、沖縄県協力のもと、沖縄のスイーツ、シークワースージュースの提供や、沖縄観光PRも行った。



開催日：令和7年3月12日
場所：在釜山総領事公邸
主催：在釜山総領事館



경상투데이



오키나와 전통주 '아와모리' 맛보세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현지 공수 생선·전통음식 등 선배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하영사관)은 지난 12일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일본국총영사 관저에서 '일본 음식과 아와모리(泡盛)의 매력 리셉션'이라는 주제로 기념사업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사업에는 박극재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장재국 동서대학교 총장, 이오상 KNN 대표, 한·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사관에서는 참석한 여러 내빈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직접 해산물을 공수해와 회, 초밥, 가리마구이, 오키나와 전통음식 등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다.

오키나와와 전통주 '아와모리'라는 오키나와

의 전통 술을 제공해 일본의 전통 명주를 여러 내빈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아와모리는 과거의 류큐(琉球)에서 지금의 오키나와까지 이어져 온 술이다. 특유의 풍미가 짙고 장기 숙성을 할수록 향과 맛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전했다.

오스가 초요시 총영사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많은 내빈이 참석해 주 감사드린다"며 "맛있는 음식과 오키나와 전통 술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ngh81@naver.com

【結果・評価】

- ◆ 当地放送局や新聞社により、今次レセプションの様子が報じられたことで、琉球泡盛及び沖縄料理等をPRすることができ、レセプション出席者だけでなく、一般市民の関心を集めることができた。
- ◆ 泡盛を飲むことは初めてだという人も多く、琉球泡盛セミナーを開催したことで、泡盛の楽しみ方などを広めることができた。
- ◆ 沖縄県と協力することで、観光や、沖縄料理なども同時にPRすることができ、インバウンドの促進にも寄与することができた。